

부인권, 채무자의 사해행위 막는 법률장치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 파산절차에서는 ‘부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다. 말 그대로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엇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인가? 채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재산(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재산)일 것인데,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가 있다면 그 결과를 부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보자. A 회사는 이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채권자 B가 자신의 채권을 어떻게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채권자 B에게 남아있던 회사의 재산 중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넘겨주면서 채권 일부를 몰래 변제했다면 이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변제 뿐만 아니라 A 회사의 부동산에 채권자 B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이 역시 부인할 수 있다. 즉 둘 사이 있었던 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 채권자 B로부터 A 회사가 교부한 물건을 돌려받거나,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선의의 채

3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행위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상대방(이익을 받은 자)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금융기관 C가 자신의 기관에 예금을 예치해 두었던 고객 D에게만 예금액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고객 D가 그 당시 금융기관 C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곧 파산을 신청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고객 D는 단지 자신의 예금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금융기관 C의 사정을 몰랐다고 해서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E 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F의 경우도 그렇다.

중요한 것은 증명책임의 소재다. 제3자(수익자)는 직접 자신이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행위에서의 거래상대방(이익을 얻은 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거래 과정에서 수익자가 선의를 가지게 된 것에 다소 과실이 있더라도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여기서 나아가 채권자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부인권은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분배 대상이 되는 재산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법률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의 입장에서서는 자신의 선의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개혁과 위기에 또 등장한 ‘청년들’



기자 수첩
박 태 홍
(정치부)

환율 급등 사태를 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를 보듯이, 전 세대가 영향을 받는 주요한 이슈에서 청년들은 시정의 대상이 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주식투자자들이 한국장보다 미국장이 ‘쿨(Cool)’하기 때문에 미국장에 투자하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고환율 사태에 당국자의 발동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한미금리차·미국의 압박으로 인한 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

국민연금의 미국주식 투자 등 여러 요인을 제쳐두고 서학개민을 제일 큰 문제라는 식이라는 그의 발언에 청년들은 ‘자기들은 다 해 놓고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라며 아연실색 했다.

청년들은 이 총재가 과거 자녀 유학비로 20억원을 써 해의 고등교육 기관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점과, 한 금통위원이 미국주식 41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정년연장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적 정년 65세를 추진하는 여당과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야당과 경영계가 여러 근거를 들었지만, 최근 이들의 주장은 단순해졌다. 고령층고연봉자의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반대 논리를 펼친다.

한해 2% 성장도 어려워진 대한민국, 기업들의 수시공채와 경력직 선호현상으로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아졌는데, 청년일자리 감소라는 반대측 주장은 연금개혁 이슈 패처럼 세대갈등까지 번질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안과 보완책을 내놓아야하는 여당은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수세에 몰리자 건설적 논의를 뒤로하고 ‘청년’ 만능 치트키를 사용하는 야당과 경영계도 무책임하다.

소설가 류츠신의 소설 ‘삼체’ 속 삼체인들처럼 청년들은 순식간에 같은 생각을 전파받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청년 속 개인을 지우고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할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은 우려된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일 (음 10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직장에서 자식 자랑 너무하지 않도록. 48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뭘 듯이 기쁘다. 60년생 큰 업체에서 일거리가 들어온다. 72년생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 84년생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지 마라.

 소

37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라. 49년생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다. 61년생 눈치보다는 소신대로. 73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수가 있다. 85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호랑이

38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50년생 우는 아이는 짓을 쥐서라도 달래야 한다. 62년생 차량정비 하는 날. 74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도 무너지니 안심은 말자. 86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토끼

39년생 오죽하면 삼재 팔만 관재구설이라 했겠는가. 51년생 가까운 사람부터 신용을 쌓아가자. 63년생 고생은 많고 실속은 적고. 75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빌 언덕이 절실. 87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양

40년생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잘해야 열흘을 가지 못한다. 52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64년생 지나친 관심은 나도 상대도 지치게 한다. 76년생 인색하면 고독이 계속된다. 88년생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뱀

41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53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본다. 65년생 합격의 기쁨이 있다. 77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89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말

42년생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5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현명. 66년생 초조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라. 78년생 자신을 이겨야만 발전도 있는데. 90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니 좋은 하루.

 고양이

43년생 망설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과감히 도전. 55년생 생선이 먹고 싶다면 그물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라. 67년생 가까운 사람과 불화를 조심. 79년생 친구가 미팅을 주선하여 약속 생긴다. 91년생 주변의 무관심이 오히려 편하다.

 원숭이

44년생 시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56년생 상사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신용을 지켜라. 68년생 남자 친구의 기대가 부담. 80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92년생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치아 손상할라.

 닭

45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57년생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69년생 양보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81년생 규칙적인 일과 즐거운 마음이 생활의 기본. 93년생 어쩌다가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돼지

46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마라. 58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70년생 본인의 거짓말로 결국은 사면초가(四面楚歌). 82년생 마음만 앞서면 결국 실패이니 실력을. 9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이득 있는 오후.

 돼지

47년생 뚝박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59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71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8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다. 95년생 방에서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김상회의四季 절기기도 복덕과 풍요

조상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땅의 기운을 돌보면서 살았다. 자연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흐름을 24절기로 나누고, 입춘에서 시작해 대한에 이르기까지 한 해를 세밀하게 가능할 수 있던 절기는 삶의 리듬이었다. 생명이 싹트는 봄 뜨거운 여름 결실의 가을 동면의 겨울이라는 계절의 흐름을 절묘하게 구분했다. 절기의 변화에 맞추어 행해진 것이 절기기도, 또는 절기고사이니 자연의 순환에 감사드리고, 시기에 맞는 복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적인 제의다. 더 많은 수확을 원하는 농부와 어부들은 하늘과 땅에 제를 올렸으니 이는 단순한 기원의 의식만은 아니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이나 불길한 기운을 기도의 힘으로 막아내곤 했다.

기도를 올리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마음을 담은 축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맑은 기운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의 절기기도는 흉년 질병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불행을 막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액운과 불안을 기도라는 정성으로, 입춘에는 새로운 기운에 감사하고, 곡우에는 단비에 고마워하며 풍년을 빌었다. 백로에는 이슬처럼 많은 결실을 바랐고, 동지에는 다시 해가 길어지는 것을 기뻐했다. 만복을 부르는 축복의 의식이다. 기도를 통해 하늘과 땅, 조상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복덕을 기원하면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평안이라는 두 가지 큰 복으로 현실에 나타난다. 농부에게는 풍년이라는 결실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번창이라는 이익으로, 가정에는 화목이라는 복덕으로 찾아온다. 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여름에는 도전하고, 가을에는 수확하며, 겨울에는 몸과 마음을 쉬고 한 해를 정리한다. 자연의 흐름에 맞추는 것은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0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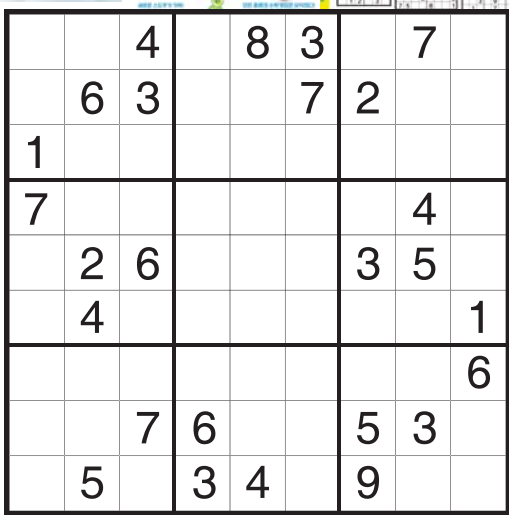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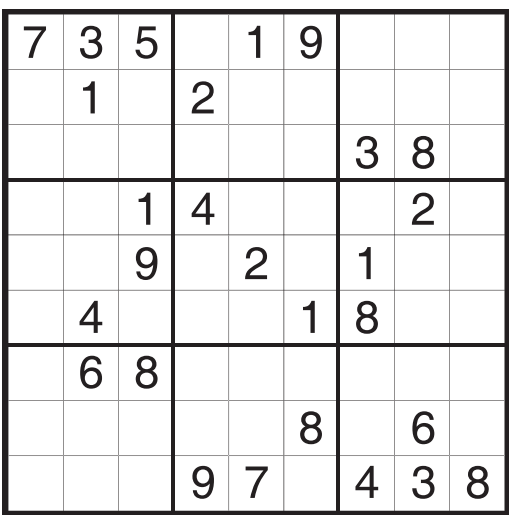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